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

(금요일—오후 집회)

메시지 6

건축하는 일과 관련하여 안식일의 원칙을 지킴

성경: 출 31:12-17, 마 11:28-30

I.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긴 기록 이후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반복하여 말한다.

- A.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 다음에 안식일에 관한 삽입 부분이 뒤따라 나온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건축자들, 곧 일꾼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어떻게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셨음을 알려 준다.
- B. 우리가 다만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일하는지는 알면서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신성한 원칙에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 1.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그분의 일을 끝마치시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분의 권위가 그분의 원수인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 막 행사되려는 참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다—창 1:26, 31-2:2.
 - 2. 이후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기념되었다(출 20:8-11).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다.
 - 3. 하나님은 사람의 누림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사람은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
 - 4. 사람은 먼저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비교 마 11:28-30).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막 2:27.
- C. 출애굽기 31장 17절은 “이는 여호와와 육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 1. 안식일은 하나님께 안식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었다.
 - 2.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 곧 하늘들과 땅과 모든 생물들,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좋았다.”(창 1:31)라고 말씀하셨다.
 - 3.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 상쾌해지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였다—창 1:26, 2:7, 비교 요 4:31-34.
 - 4.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혼’이셨다(비교 창 2:18, 22).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표현하여 그분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셨다(고후 11:2, 엡 5:25). 영원 미래에 하나님은 한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얻으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어린양의 아내라 불린다(계 21:9-10).
 - 5. 사람은 상쾌하게 하는 음료와 같이 하나님의 목마름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끝마치시고 안식하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을 그분의 동반자로 얻으셨다.
 - 6. 하나님께 일곱째 날은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반자인 사람에게서는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 첫째 날이었다. 즉 사람의 첫째 날은 누림의 날이었다.

- D. 우리가 누림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신성한 원칙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얻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갖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에서 성취하신 것을 누린다.
 2. 오순절날에 제자들은 그 영으로 채워졌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포도주로 취했다고 생각했다—행 2:4상, 12-13.
 3. 사실상 그들은 하늘에 속한 포도주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다. 오직 이러한 누림으로 채워진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과의 하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오순절은 여덟째 주의 첫째 날이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에 관련해서 우리는 첫째 날의 원칙을 본다.
 4. 하나님께 이것은 일하고 안식하는 문제이지만,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문제이다.
- E.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 예표된,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일하기 위한 힘과 수고하기 위한 에너지가 되실 것이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표시를 지켜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2.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곧 속을 채워주시는 영에 의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시를 가졌고, 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었다—행 2:14.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런 다음 우리를 채우시는 바로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표시를 지켜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으로서 일해야 한다.
 4.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을 공급하기 위한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시라는 표시를 지니기를 항상 추구해야 한다—고후 13:3, 행 6:4.
- F.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한 영원한 계약 혹은 언약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그런 다음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그분과의 하나 안에서 일함으로써 그분과 하나 될 것임을 하나님께 보증해 드리는 것이다—출 31:16.
1. 주님을 마시고 먹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누리지 않은 채 스스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이다—비교 고전 12:13, 요 6:57.
 2. 베드로는 오순절날 말씀을 전할 때에 내적으로 예수님께 참여하면서 그분을 마시고 먹고 있었다.

- G. 안식일은 또한 거룩하게 되는 문제이다(출 31:13).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그런 다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일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세속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며, 육체에 속하고 타고난 모든 것을 대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적셔진다.
- H.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많은 일들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봉사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고 몸 안의 교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출 31:14-15).
- I.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를 한 가지 것, 곧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상쾌하게 되시는 안식일로 이끈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성막 안에 있으며, 성막은 우리를 안식으로, 곧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한 누림으로 이끈다!
- J.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누림으로 시작해야 하고, 틈틈이 하나님을 누림으로써 상쾌하게 되면서 그 일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 내적인 안식으로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II.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마 11:28-30.

- A. 여기에서 수고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킨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 B. 주님은 아버지의 길을 인정하시고 신성한 경륜을 선언하시면서 아버지를 높이 찬양하신 후에(마 11:25-27), 이런 사람들을 그분께 나아와 안식하라고 부르셨다.
- C.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
- D.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되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 E.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다만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다(요 4:34, 5:30, 6:38).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다(마 26:39, 42).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 F. 온유하다 혹은 온화하다는 것은 반대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겸허하다는 것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모든 반대 가운데서도 온유하셨으며, 모든 배척 가운데서도 마음이 겸허하셨다.
- G.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무엇인가를 얻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셨다.
- H.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으로써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만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다.

- I.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멍에는 편하여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
- J. ‘편하고’에 대한 헬라어는 ‘용도에 꼭 알맞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렵고, 엄하고, 날카롭고, 괴롭고’와 대조되는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편하고, 유쾌하고’를 의미한다.
- K.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멍에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누림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안식일의 의미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의 의미가 단순히 일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참 의미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말한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지만 사람에게서는 첫째 날이다. 옛세 동안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후인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손으로부터 사람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인 사람의 첫째 날이 막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서는 첫째 날이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 안식일은 일을 마치신 후의 안식이지만, 사람에게서는 안식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일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옛세 동안 일하셨고 그다음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첫째 날에 안식했고 그 후에 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상쾌하게 되심

나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출애굽기 31장 17절을 읽을 때 기쁘다. 이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께 휴식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는 ‘상쾌해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첨가되었다. 이는 하나님조차도 상쾌하게 되실 필요가 있음을 계시한다.

상쾌하게 되는 것은 안식하는 것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우리가 안식하는 데에는 특별한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 앉거나 눕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가 상쾌하게 되려면 무언가를 먹거나 마실 필요가 있다. 영어 단어 ‘리프레쉬먼트(refreshment)’는 ‘다과(茶菓)’와 ‘상쾌하게 됨’이라는 뜻을 갖는다. 여기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쾌하게 되려면 우리를 상쾌하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도 그분을 상쾌하게 할 무엇이 필요하시다.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나님을 상쾌하게 해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상쾌하게 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전혀 인상받지 않고서 출애굽기 31장을 여러 번 읽었을 것이다. 나는 한 번 이상 출애굽기를 해석했지만 최근에서야 31장 17절의 ‘상쾌해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시고 상쾌하게 되셨음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안식은 그분의 창조물에 달려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장인(匠人)이 오랜 시간을 들여 매우 특별한 의자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일을 다 끝마쳤을 때 그는 자신이 만든 의자에 앉아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관해 생각할 것이다. 나는 가끔 책을 쓰는 일을 마친 후에 이런 종류의 안식을 체험한다. 어떤 책을 쓰기를 마쳤을 때 나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 내가 쓴 것을 보면서 누린다. 나는 특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에게서 받은 빛을 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옷을 스스로 만드는 자매들은 특정한 옷을 만든 후에 즐거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 곧 하늘들과 땅과 모든 생물들,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상쾌하게 되실 수 있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으로 상쾌하게 되신다. 사람은 하나님을 상쾌하게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상쾌하게 하였다.

창세기 2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포적인 의미를 가졌으며, 하나님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의 하나님은 미혼자에 비교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을 미혼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지칭한다고 우리를 비난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관해서 이러한 말이 사용되는 것을 듣기를 기뻐하신다고 믿는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은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 내가 인류를 창조하기 전 나는 진실로 미혼자였다.” 성경은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미혼자’이셨음을 계시한다. 그러나 영원 미래에 그분은 어린양의 아내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 즉 그분의 아내를 갖게 되실 것이다(계 21:9-10).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 어린양의 아내라는 성경의 계시에 따라,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관하여 미혼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보셨을 때 안식하고 상쾌하게 되실 수 있었다. 사람은 상쾌하게 하는 음료와 같이 하나님의 목마름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켰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끝마치시고 안식하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을 그분의 동반자로 얻으셨다. 하나님께 일곱째 날은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반자인 사람에게는 안식과 상쾌함을 얻는 날이 첫째 날이었다. 즉 사람의 첫째 날은 누림의 날이었다.

신성한 원칙

우리가 누림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신성한 원칙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누림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얻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갖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문제를 강조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 일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바에 따르면 다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원칙의 매우 좋은 실례가 신약 안에 있다. 사도들의 신약의 사역은 그들이 오순절날에 가졌던 누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자들은 엿새 동안 일하지 않고 오순절날에 주님을 누렸다. 실지 상황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주님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다. 그들은 그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포도주로 취했다고 생각했다. 사실상 그들은 하늘에 속한 포도주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다. 오직 이러한 누림으로 채워진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며 하나님과의 하나 안에서 일하는 방법이다.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두 그분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였다.

오순절은 한 주의 첫날이었다. 오순절은 칠 주 또는 사십구 일의 이튿날인 오십 일째를 가리킨다. 우리는 레위기 23장을 통해 오순절이 첫 이삭을 드린 후 오십일이 되는 날임을 알고 있다. 이

것은 오순절이 여덟째 주의 첫째 날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순절에서 우리는 첫째 날의 원칙을 보게 된다.

안식일은 언제나 사람의 첫째 날이다. 구약에 따르면 안식일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따라 여덟 번째 날, 사람의 안식의 날은 또한 첫째 날이었다.

구약의 원칙에 따르면 사람이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후에 온 날이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끝마친 후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완성하신 후에 사람이 안식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누린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누린다.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숨 쉴 공기와 마실 물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둘째 날에 이미 광활한 대기권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또한 사람을 위해 물과 음식을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안식의 날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언제라도 누릴 수 있도록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손으로부터 나왔을 때, 사람의 첫째 날은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했으며, 결국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창 2:15). 아마도 아담은 그의 첫날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린 후 또 다른 엿새 동안 동산을 지키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다음 사람은 그의 여덟 번째 날에, 즉 다른 첫날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다. 이것은 안식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반복되는 일종의 순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안식하는 문제이며,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문제이다.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에 관하여 계시를 주시고 건축자들을 선택하시며 모세에게 건축자들이 지켜야 할 명령을 알려 주신 후에, 계속하여 안식일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의 안식일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자신의 일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변명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처소를 건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날마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인 나의 신성한 일에 서조차도 너희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여전히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나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나와 하나 되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일하기 위한 힘과 수고하기 위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자신 안에서 너희 스스로 일한다면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 되어 나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이처럼 일한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곁을 떠나 너희 스스로 나를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나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너희의 누림과 힘과 에너지가 되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표시를 지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기 위하여 너희의 모든 것이 되는 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이처럼 일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지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표시

우리 모두는 안식일에 관하여 기본적인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다. 젊었을 때 나는 다른 이들과 여덟 번째 날이나 일곱 번째의 날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킬 것인지에 관하여 토론했다. 지금 나는 그런 식의 토론은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말하곤 한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할 준비를 갖춘 것이다. 그러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오순절 때의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베드로가 서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혼자 힘으로 전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충만히 채운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는 공허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곧 속을 채워주시는 영에 의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표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한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

는 표시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표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전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지닌 표시는 무엇인가? 그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난 후에 우리를 채우신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일한다.

나는 말씀을 전하려고 일어설 때마다 나의 유일한 기도가 나의 말함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임을 간증할 수 있다. 나는 거듭거듭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저는 말하는 가운데 당신과 한 영 됨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말은 당신의 말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저의 말 속에서 당신께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일 당신께서 저와 하나가 아니시라면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허한 자신 안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께 모독과 모욕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말할 뿐 아니라 당신과 하나 됨으로 인하여 말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 듣는 사람들은 저와 당신이 하나라는 인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당신과 한 영인 것을 제 편에서 실행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께서 저와 한 영이신 것을 당신 편에서 실행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존귀와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의 표시이다. 언제나 나는 말할 때 나의 주님께서 나의 안식일이시라는 표시를 지니려고 한다. 그분은 나의 안식이시고, 나를 상쾌하게 하는 분이시며, 나의 힘과 능력이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모든 것이시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성막의 건축자들이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기까지는 일을 시작하지 말아야 했음을 본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상쾌하게 된 후에야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없었다. 그보다 이 일은 수고하는 옛새와 안식하는 하루의 주기로 계속되었다. 매 주기에서 시작한 안식의 날이며 그 뒤에 일하는 옛새가 이어진다. 그다음에는 안식으로 시작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일하는 또 한 번의 주기가 있게 된다.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께는 일곱째 날이며 사람에게는 첫째 날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의 누림과 안식을 위해 일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신 일을 누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난 옛새 동안 성취하신 것을 그의 첫째 날에 누렸다. 그런 다음 옛새 동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옛새 동안 일한 후에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먼저 누리고 또다시 그 후 옛새 동안을 일했다. 이 과정들은 하나의 순환과도 같다. 이 순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표시이다.

영원한 언약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한 계약 혹은 언약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 될 것임을 하나님께 보증해 드리는 계약 혹은 언약에 서명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먼저 그분을 누림으로써 그분과 하나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 안에서 일할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것은 단지 한 세대나 한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계약이다.

언약은 계약보다 강한 것이고, 계약은 약속보다 강한 것이며, 약속은 일반적인 말보다 강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과의 하나 됨 안에서 그분을 위해 일하기 전에,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해질 것을 보증하는 그분과의 계약에 서명하기를 원하신다. 일단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계약에 서명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지키겠다는 보증을 하면 우리는 그 계약을 깨뜨릴 수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다면, 그분은 우리를 하늘의 법정으로 이끌어 계약을 지키지 않은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안식일이 하나의 표시이며 동시에 영원한 언약, 곧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취하고 또한 주님을 먹음으로써 누리는 것이다.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주님을 신뢰했을 뿐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였고 주님을 마시기까지 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을 마시며 먹고 있었다고 믿지 않는가?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내적으로

는 예수님께 참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베드로는 자신이 먹은 것을 전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린 것을 증언했다. 베드로는 주님과 맺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주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다. 주님과 베드로 양편이 모두 그 계약에서 자기 역할을 지켰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을 먹었는데도 주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면, 주님은 그 계약을 파기하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도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돌아서 버린다면 베드로가 그 계약을 깨뜨린 것이다. 여기서의 중점은 안식일은 하나의 표시이며 또한 언약이고 계약이며 협약이라는 것이다.

거룩하게 됨의 문제

안식일은 또한 거룩하게 됨의 문제이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표시하고 우리를 구별한다. 우리가 주님을 누린 다음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하나 됨으로 일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된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속된 것으로부터 분별된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172장, 1864-1873쪽)